

## '3연패 흔들' 한화, 두산·KIA 만나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다 3연패로 추락한 한화 이글스가 이번주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를 연달아 만나 반등을 노린다.

한화는 정규시즌 개막 다음날인 3월 24일 잠실 LG 트윈스전부터 3월 31일 대전 KT 위즈전까지 7경기를 내리 이기며 매서운 상승세를 자랑했다.

그러나 지난주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했다. 특히 5~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연달아 패배를 맛봤다.

5일 경기에서 '돌아온 에이스' 류현진을 내고도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켜 아쉬움이 컸다. 류현진이 5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대거 10점을 내줬고, 한화는 결국 7-11로 졌다.

한화는 6, 7일 경기에서 연달아 1점차 패배를 당했다.

6일 경기에서 선발 펠릭스 페냐가 3이닝 4피안타(1홈런) 6실점(4자책점)으로 무너지면서 끌려간 한화는 1점차까지 추격하고도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7일에는 연장 11회 이태양이 김혜성에게 끝내기 홈런을 헌납해 역시 석패했다.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한화는 9~11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 '7연승' 돌풍 키움, 3연패 빠진 SSG와 격돌 이번 주말 '한 지붕 두 가족' 두산·LG 첫 대결



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KBO리그 한화 이글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11대7로 승리를 거뒀다.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아쉬워하며 그라운드를 빠져 나가고 있다.

를 상대한 뒤 안방인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돌아가 KIA 타이거즈와 대결한다.

한화는 두산과의 주중 3연전 선발 투수로 리카르도 산체스, 문동주, 류현진을 내세울 전망이다.

산체스가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79(11⅓이닝 1자책)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화가 분위기를 전환하려면 문동주, 류현진이 지난 등판의 아쉬움을 털어야한다.

류현진은 난타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숙제다. 류현진은 5일 키움전에서 5회에만 7타자 연속 안타를 맞은 등 4⅓이닝 9피안타 9실점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난조 탓에 또다시 KBO리그 개인 통산 99번째 승리를 품에 안지 못했다. 류현진은 11일 두산전에서 복귀 후 첫 승리와 개인 통산 99번째 승리에 재도전한다.

두산도 썩 분위기가 좋지 않다. 불펜 난조 속에 타선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주 1승 5패에 머물렀다. 두산은 현재 불펜 평균자책점 5.81로 9위다.

한화와 KIA의 주말 3연전에서는 '에매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한화의 경기는 연일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다. 홈에서 벌인 5경기에는 모두 만원 관중이 들었고, 3월 23~24일 잠실 LG전과 5~7일 고척 키움전도 모두 매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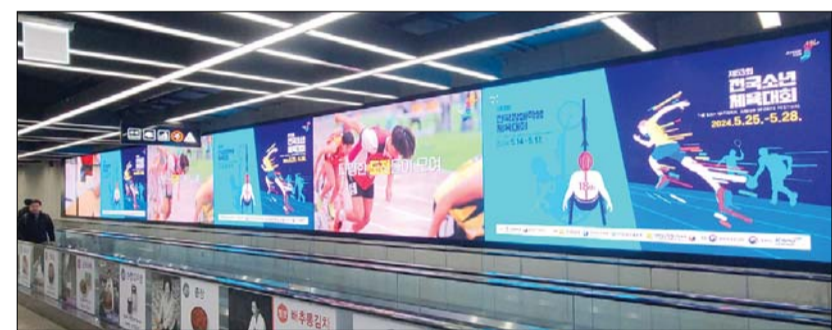
KIA도 광주 홈 경기에서 3연의 매진을 기록했고, 지난달 29~31일 잠실 두산전에도 만원 관중을 불러모았다. 올해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두 팀이 주말에 대결할 수많은 관중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



광주여대, KUSF 대학배구 U-리그 개막전 승리. 광주여대 학교 배구부는 지난 6일 목포에서 진행된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개막전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손은진 세터를 중심으로 프로·실업 선수 출신들이 대거 재학 중인 경일대에 젊은 패기와 파이팅으로 도전해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했다. /광주여대 제공

## 전남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붙임'

### 다양한 홍보로 사전 분위기 조성...체전 기간 체험부스



전남도가 오는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대회 분위기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전국 청소년선수가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스포츠 대축제로, 올해는 2만 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치르면서 역대급 체전이라는 호평을 이끌어 낸 경험을 토대로 소년·장애학생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 관문인 목포역 광장에는 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을 설치했고, 체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누리집도 구축했다. 포스터도 전국에 배포했다. /김 호 기자

## 전남드래곤즈, 부산에 '1-0 승' ...3경기 연속 무실점

### 김종민 시즌 3호 결승골...10일 수원삼성과 격돌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7일 오후 펼쳐진 K리그2 2024 5라운드 부산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달성했다.

전남은 4-1-4-1 포메이션으로 부산을 상대했다.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전반 6분 부산 로페즈의 1대1 찬스를 유지하가 강력한 태클로 차단했다. 이어 시도한 역습에서 임찬율이 연결한 패스를 하남이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였지만 구상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남은 하프타임에 최성진 대신 발디비아를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후반 2분 문전에서 하남이 내준 패스를 임찬율이 슈팅을 시도하며 포문을 열었다. 후반 10분 김종민, 박태용을 교체 투입하며 득점을 노렸다.

후반 28분 발디비아가 올린 코너킥이 문전 경합 상황에서 구상민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김종민이 가볍게 밀어 넣으며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온 필드 리부팅을 실시했지만 골로 인정되었으며 김종민은 시즌 3호 골을 신고했다.

전남은 부산의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며 무실점 3연승을 달성했다.

상승세의 전남은 5년 7개월 만에 오는 10일 오후 2시 K리그2 2024 6라운드원정 수원삼성과 격돌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 K리그 3월 이달의 선수상 오는 11~14일까지 팬 투표



가브리엘(왼쪽부터), 김현욱, 이동경.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가브리엘(광주FC), 김현욱(김천상무), 이동경(울산 HD), 정재희(포항스틸러스) 등이 3월 이달의 선수상을 경쟁한다고 8일 밝혔다.

'EA SPORTS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은 연맹과 K리그 공식 비디오킴인 파트너 일렉트로닉스(EA)가 함께 매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팬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Kick'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 후 투표가 열리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총 4회까지 투표할 수 있다.

**Golf** 500평 규모 31타석 및 최타2개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 선정

**QED 골프아카데미 상무점**

**2022 QED BIG EVENT**

- 회원 등록 전 무료 레슨 체험
- 카톡 클래스 친구 추가 시 골프장 60분 이용권
- 주니어 골프교실 50% 할인 적용

김넷과 상무점 '해운대 영무호텔' 숙박권 증정

500평 규모, 31개 타석 / 프라이빗 스튜디오 / 높이 180cm 대형 타석 / 샤워시설과 사우나 구비

문의전화 062)374-0088

**광주 유일 100m 트랙을 소유한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VIP MEMBERSHIP**  
광주은행 / 기아자동차 / 영무토건 / 바로연 / 영무파라드호텔 / 신성모터스 밴츠 / U탑 유블레스 / 시원병원 / 워디스 웨딩 / 압구정 제이엘의원 /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회원 본인 및 가족 20% 할인

**LOC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64 영무에다움 상가 2F, 3F

**HOURS**  
월-금요일 오전6시-오후12시  
토-일/공휴일 오전8시-오후8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RESERVATION**  
전 중목 파라드시티 어플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 이용  
상세 내용은 어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Parade City

전국 최대규모 프리미엄 토탈센터

**파라드시티**

**THE 14DAYS**

**Calorie Bar**  
Daniele  
THE 14DAYS

**Fitness**

**Tennis**